

中 관광객 유치 기대감 증폭

한중 사드갈등 봉합에 전북도 홍보마케팅 재시동 내년 초 금한령 해제 예상... 유커맛이 준비 돌입

전북도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재정비하고 세분화된 마케팅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에 본격 돌입한다.

전북도는 지난날 31일 중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전라북도관광홍보대사(고중기, 푸위)와 연락을 취해 현지 사정을 살펴봤다. 산동성에 거주중인 푸위 홍보대사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금한령과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 조치도 풀릴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연내 중국 대규모단체 관광객의 도내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현지에서 있는 홍보대사들과 중국의 금한령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 내년 초 본

격적으로 태권도, 노인 청소년 문화교류단 등 특수목적관광단을 유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중국과 일본을 집중 타겟으로 하여 해외현지의 블로거와 SNS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 여름 시작된 중국의 '두도우'와 '라시'에서 상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관광 홍보영상은 6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다.

또한 금주 중, 전라북도 전담여행사(중국전담)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전담여행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전북을 홍보해오고 있는데 올 9월, 중국사할관계자들이 방문한 데 이어 12월에 중국 사할관계자와 신도 100여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11월 중에는, 올 초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사드 정국으로 인해 멈춰진 청주공항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 계획도 충청북도와 함께 다시 협의하고, 내년도 공동 추진 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해 전남, 광주와 해외박람회 참가, 관광설명회 개최, 팸투어 등 공동마케팅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소규모 MICE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마이스협회(회장 김응수)의 내년 사업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전북에서 많은 대회와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은 국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에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중 해빙기류가 엮이는데 만큼 내년 초를 겨냥해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농생명 SW융합페어 팡파르

오늘부터 이틀간 한옥마을서 제품전시·국제교류 세미나

제3회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가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전주 한옥마을 인근 르윈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메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를 슬로건으로, 농생명 SW융합기술 및 제품전시와 더불어, 전라북도 농생명 SW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초청 국제교류 세미나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2015년 6월부터 농생명 인프라에 SW·ICT를 접목하여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일(목) 11시에 전주 르윈호텔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은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하여 SW·IT 농생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농생명산업의 기술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의 이미지가 ABR(에어벨론

로봇) 나무에서 하나씩 열매로 달리는 퍼포먼스를 구현하여,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전시관에서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발굴된 '정밀농업을 위한 스마트 팜', '체인관리를 통한 축사관리 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 농생명 제품 20여개가 전시 되는데 이 중 몇 개 업체를 소개한다.

'에스에스엘'은 온·습도 및 배지 무게 측정에 따른 자동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능화한 차세대 스마트 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1인기업으로 시작한 '서우엘에스'는 2016년부터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통해 버섯 재배를 위한 모듈형 시스템을 개발, 2017년 상반기 매출 8억3천만원의 매출과 10명의 신규고용을 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했다.

체험관에서는 '하이브리드 트랙터 키트 제작',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해 수분상태를 알려주는 화분 돌보미 제작' 등 농생명 관련 체험과 AR VR, 드론 등 최신 SW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기업교류행사에서는 '기술혁신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보유한 농생명 관련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소개하며, 스마트팜·ICT

축산·농기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농생명 관련 주제로 국내외 기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한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미래농업 기술동향(서현권 박사)과 이스라엘 국가의 혁신적인 농업기술(이민희 수석사무관) 등 농생명 ICT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스마트 농생명 분야의 첨단기술 동향과 도내 기업의 기술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모델을 제시 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농생명 SW융합 기술혁신 포럼을 통해 농생명 관련 SW기술이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LED 수직농장에서 환경제어 시스템, 소재부품 연구 개발, 머신러닝을 적용한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례위주의 발표를 진행한다.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농생명 SW융합페어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히며, "농생명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농생명 분야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농업으로 앞장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세계최대 복합소재 전시회)가 43개국 2200여기업, 전북도 탄소기업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열린 가운데 송하진도지사와 프레드릭 뮈텔 JEC그룹 회장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만든 국내최대 3D프린팅으로 만든 전기자동차를 타고 있다.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로 우뚝서다

전북도, JEC ASIA와 국제탄소페스티벌 공동 개최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이 주관하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국제탄소페스티벌은 매년 전북도청 일원에서 개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폭넓은 관심을 모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올해에는 그같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전북 탄소산업이 바로 한국의 탄소산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장소를 서울로 옮겨 개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최대의 전시회 전문기업인 JEC그룹의 아시아권 전시회인 JEC ASIA 행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JEC그룹은 전 세계 96개국, 25만명의 복합소재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JEC ASIA와 국제탄소페스티벌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전세계에서 43개국 220여개의 기업이 참가, 관람객 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한국 탄소산업의 시작은 전라북도, 전주에서!'라는 슬로건 하에 ICF 특별관, ICF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개최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JEC그룹 프레드릭 뮈텔 회장,

프랑스 대사관의 줄리앙 드뤼프 수석 참사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주요인사들과 국내외 석학 기업인 등 200여명이 함께하여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 개막을 축하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전라북도도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왔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JEC그룹과 함께 세계무대에 나아가려고 한다"며, "이번 행사가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 복합소재산업의 비전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대표단, 일본교류 청신호

자매 도시 '이시카와현' 방문

농산물거래·수확여행 활성화

우호교류차 일본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중인 전라북도의회 대표단이 농수산물과 청소년수확여행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현 도의장 등 도의회 대표단은 1일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이시카와현 의회를 방문해 요네자와 켄지 의장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대표단은 전라북도의 농수산물품 수출액 가운데 일

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두 도시 우수농수산물 거래 확대 등을 통해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두 도시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수확여행교류를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황 의장은 미리 준비해간 새만금지도를 펼쳐 보이며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에 일본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우정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이자 전라도 방문의 해인만큼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일본방문 첫날인 31일에는 가고시마현 지사와 현의회 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세계태권도대회 성공개회와 2023새만금잼버리대회 유치 등을 한해 전북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황현 의장은 "양 지역 의회의 상호방문이 이어지면서 두지역의 이익과 교류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대표단 방문 역시 의회는 물론 두 도시간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